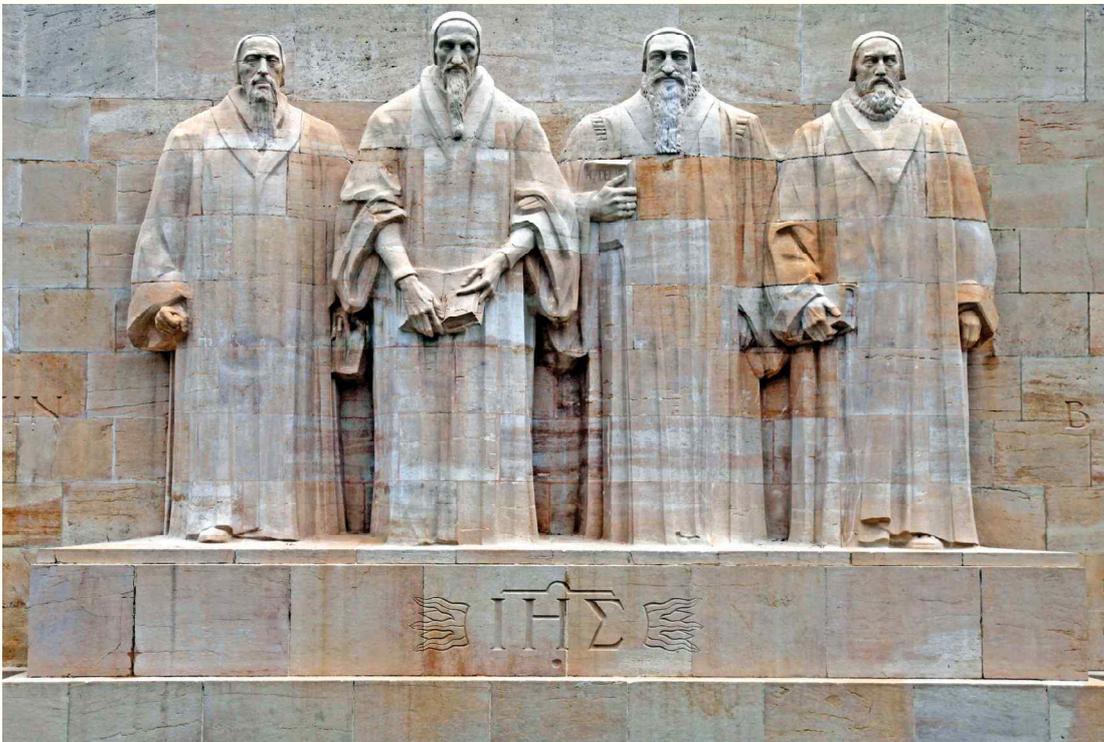


# 종교개혁과 인문학

- 성화(聖化)된 인문주의를 기대하며 -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 2017년은 의미가 각별하다. 기독교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한 종교개혁(Reformation)이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사제이며 신학교수로 활동하던 M. 루터(Martin Luther)는 당시 가톨릭의 교황권, 교리, 면죄부 등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증해 가던 중 공개토론

을 요청하기에 이르른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로 알려져 있다.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정리한 루터의 이 반박문이 유럽 사회를 뒤흔든 종교개혁으로 변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은 서구 사회의 지배 세력이었던 가톨릭을 변혁하려던 단순한 종교 운동이 아니었다. 물론 종교개혁의 주된 영역은 교회, 기독교계와 연관된다. 하지

만 종교개혁은 사회 모든 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서구의 존재 방식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구성하게 된 혁명이라 해야 옳다. 종교개혁은 서구의 종교, 세계관, 정치, 경제, 문화, 일상의 가치 체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중세(Middle Ages)와 근대(Modern) 사이에 위치하며, 중세의 종언이자 근대의 출발이라 하겠다.

중세의 종말로서 종교개혁에는 진조현상이 있었다. 항해술의 발달로 인한 신대륙 발견, 르네상스, 인문주의(Humanism), 기사계급의 종말과 사회 중산층(무역, 상업, 수공업자 길드 형성) 대두, 과학기술의 발달(인쇄술) 등은 종교개혁에로의 길을 예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섭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전 7:13) 종교개혁을 준비해 가는 시대의 환경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 드디어 변혁의 불길로 번지게 되었다. 중심은 바로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럽 전역에서 개혁의 봉화를 기다리는 파수꾼에게 신호를 보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그렇다면 중세가 저물어갈 즈음 등장한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 휴머니즘 vs. "주가 쓰시겠다 하라"

먼저 인문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해결해야 한다. 인문주의를 인본주의로 번역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그리스-로마 원전(原典), 즉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학풍을 말한다. 원전을 도외시한 해석이 오히려 의미를 곡해할 위험이 있어 이를 극복하자

는 진지한 학문 자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교육과정의 주된 영역이었던 고전 언어학, 문법, 수사학, 웅변술 등에서 일어난 반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인본주의(human-centricity)로 번역하면 뜻이 전혀 달라진다.

인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이성 중심주의, 합리 지상주의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반종교, 반신앙적이라 여겨지는 그리 달갑지 않은 용어이다. 인본주의가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계는 그리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F. 쉐퍼). 오히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면 진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 21:3) 그것이 인문주의든지 인본주의든지 주님이 쓰신다면 현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의 경우, 그를 미치게 했다고 비판받았던 많은 학문(행 26:24)이 도리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 받지 않았던가. 인문주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인문주의는 오늘날 인문학이라 하기도 한다. 인문학(Humanities)은 줄여서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불리며,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학문이다. 인간 상황(conditio humana)을 다른 외적인 이론에 기대어 해석하기보다 인간 내면과 정신으로 질문하고 답해가는 철저히 인간적인 학문이다. 개인의 의견과 해석보다는 '원전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먼저 찾아가자는 자세를 말한다. 당시 "ad fontes"라는 개념을 활용했는데, 이는 '근원의 샘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다. 원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 고전 언어를 공부해야 했다. 이런 학문 자세는 초월적이며 신비한 방법



으로 해답을 찾기보다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과정에 더 무게를 두었다. 종교계에서는 가톨릭이 신앙 생활에서 '전통'의 명분으로 지키게 한 수많은 종교 예식과 관습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성경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에라스무스(Erasmus)이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고난을 당하나 수도사가 되어 『엔 키리디온(Enchiridion)』, 『우신예찬』, 『헬라이어 성경』, 『교부들의 저술』 등을 출판하였다. 이 책들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가톨릭 교리와 교황권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냉정한 비판자가 되어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인문주의 영향을 끼친 교사로써 단연

로이홀린(Reuchlin)을 꼽을 수 있다. 그의 히브리어 문법책은 성경을 불가타 번역이 아니라 원전으로 읽게 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루터 곁에서 사역과 학문의 동지였던 멜란히톤(Melanchton)은 로이홀린의 제자(외손자)로 전형적인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된다. 그 자신이 헬라이어 교수로 비텐베르크에서 활동하면서 『신학개론(로치 코뮤네스, Loci Communes)』, 『아우구스티누스 신앙고백(Confessio Augustana)』 등과 같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논리 전개방법이 인문주의 학문에서 기인하였다.

#### 종교개혁가의 인문주의

그러면 인문주의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서 루터와 츠빙글리는 수학하는 과정에서 모두 인문학, 교양과정(liberal arts)을 접했다. 여기서 글쓰기와 말하기 방식(문법, 수사학, 논리학, 웅변), 사유 방식(철학), 예술(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루터는 당대에 유행하던 고대 그리스 철학, 고전 시세계를 맛보기도 하고, 집안의 권유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잘 알려진 약천후 속 회심 사건으로 인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린다. 신앙 및 신학 논쟁집, 교리서, 성경 주석 외에도 루터는 수많은 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잠재력이 수학 과정에서 습득된 인문주의적 영향으로 본다. 또한 가톨릭 교리, 교황권, 예전(Liturgy), 사제의 도덕성 등을 비판한 글들은 문체적으로 풍자, 비유문학에 속하는데, 여기에도 수사학적 문체를 공부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대 교양 과정으로 수사학은 글과 말의 분야가 나뉘어졌다. 말의 수사학은 웅변술로 구체화되는데, 루터는 개혁과정에서 반대파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여야 했다. 그의 웅변술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문주의적 교육 과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스위스의 개혁자 츠빙글리 역시 루터와 비슷한 길을 걷는다. 국내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던 그는 비엔나로 건너가 문학과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나중에 바젤에서 받은 학위는 인문학 석사였다. 인문주의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 후에도 식을 줄 모르고 타올랐다. 나중에 에라스무스에게 경도되어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상을 전수받으려 했으나 결국 갈라서게 된다. 하지만 그가 당대 걸출한 인문주의자에게서 받은 내적 열망은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용병제도의 부당성, 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의식은 인문주의자의 개혁정신이라는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개혁 2세대인 칼빈은 의심할 바 없이 당대의 교양과정과 인문학을 공부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도 옮겼는데, 오를레앙 대학에서 인문주의자인 올리베탄(Olivetanus)을 만나게 되면서 인문주의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 그가 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은 칼빈이 갖고 있는 인문주의적 소양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보인다. 그리스-로마적 작품들을 인용한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종교개혁의 대표 저술이자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 강요』는 그 논리의 치밀한 구성과 전개, 사상의 정교한 배열은 법학도로서의 학문 방식이 깊이 스며있다고 본다.

종교개혁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이들로써 취리히의 불링거(H. Bullinger),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M. Bucer), 칼빈의 동역자인 제네바의 베자(T. Beza)가 있다. 이들도 역시 교육 과정에서 인문주의 수업을 받았으며, 그 영향이 학문적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문학 vs.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인문주의는 종종 인본주의로

종교개혁은 서구의 종교, 세계관, 정치, 경제, 문화, 일상의 가치 체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중세(Middle Ages)와 근대(Modern) 사이이자, 중세의 종언이자 근대의 출발이다.

오역되었고 매도되었다. 처음부터 인본주의는 이런 편견에 피해를 받아 왔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 인문주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다. 예를 들면 이런 성구가 그 근거가 된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딤후 1:4)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7)

그렇다면 인문학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일까. 인본주의와 인문학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 다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길에서 있던 인문주의는 과연 어떤 학문이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의 사유와 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인문주의는 어떤 학문이었는가, 그것이 원래부터 부정확한 방법론이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었는가, 여기서 주님이 쓰시는 인문주의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인문주의, 그것이 인문주의의 진정한 본체가 아니었던가. 교양과정, 인문학을 포괄하는 인문주의는 그

은혜란 이름으로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본 회퍼의 말처럼 은혜는 값비싼 것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다.  
 인문주의가 치열하게 원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기준해야 한다.

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닐까.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섭리 가운데 인문주의라는 교육을 통해 훈련받았던 것이다. 인문주의는 다음 다섯 가지 원리를 내포한다. 첫째 해석의 오류, 전통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의심할 것, 둘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현상의 아우라를 벗어버리고 원전으로 돌아갈 것, 셋째 학문 방법은 원전에 대한 진지하고도 치열한 자세여야 할 것, 넷째 편협과 만용을 극복하기 위해 비판할 것은 철저하게 비판할 것, 다섯째 진리를 발설함에 원전이 증거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 등등.

종교개혁가들은 인문주의의 이 원리를 가톨릭 개혁과 교계 정화에 활용하였다. 첫째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성례, 성만찬, 미사, 고해성사 등), 교황권, 면죄부, 사제의 도덕성 등이 과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둘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만찬 자체가 주님의 몸과 피의 임재인가, 아니면 기념해야 하는 예식인가.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인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 셋째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의롭다 함은 행위로 얻는가, 믿음으로 얻는가. 넷째 가톨릭계가 여러 교리로 지배하고 있는 신앙세계, 종교생활이 정당한 것인가, 혹 틀린 것은 아닌가.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린 것인가. 다섯째 진리를 지키는 일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무섭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는가.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수많은 고뇌에 대하여 원전인 성경으로 돌아간다. 다른 어떤 철학가나 교부들의 의견보다 성경을 펼치며 진지하게 묻는다. 그 해답을 진리의 샘이 되는 성경에서 퍼 올렸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샘이고 근원이었다. 종교개혁가들은 모두 성경의 이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하려 했던 이들이다.

### 인문학의 성화

종교개혁 5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교개혁이 오늘 시대에 던지는 의미를 여러 면에서 생각하고 적용, 실천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종교개혁과 인문학라는 주제로 범위를 좁혀 보아도 교훈과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모든 삶의 원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21세기 한국 기독교를 일컬어 중세교회로 회귀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타인의 설교, 주석 등을 마구 퍼 온다. 표절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원전은 뒷전이고, 유명 신학자, 설교자의



글이 원전처럼 권위를 행사한다. 중세 교회의 이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 기복신앙, 성공신학이 한국 교계에 스며들어 교회 자체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은혜는 값비싼 것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본회퍼 목사). 인문주의가 치열하게 원전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그럴 때에야 진정한 자유가 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중세를 개혁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도 바로 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reformata ecclesia reformanda)!!

인문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학문은 어떤 방법론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4,5) 인문주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고백할 때 인문주의는 세속화된 인본주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되리라.

인문주의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에 따라 학문적 진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행 11:9) 부디 인문주의와 인문학이 성화되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야겠다. 그리한다면 중세의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의 한 축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제 2의 종교개혁을 재연할 수 있으리라.



글 | 추태화

인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